

к с і

《世說新語》를 통해 본 魏晉의 어머니

이영숙*

<목 차>

- I. 시작하는 말
- II. 《世說新語》에 나타난 어머니 형상
- III. 《世說新語》를 통해 본 魏晉의 모자관계
- IV. 맺는 말

I. 시작하는 말

漢末에서 魏晉까지의 시대는 중국 역사상 매우 독특한 시대로, 정치적으로는 극도의 혼란으로 사회의 갈등과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반면 문화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전에 없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시기이다. 전통적 儒家思想이 붕괴되고 老莊思想이 대두하면서 가치관은 名敎와 禮敎를 중심으로 한 群體의식으로부터 自然과 生命 중심의 個體의식으로 전환되어 개인의 자아각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순수 老莊思想은 위진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明哲保身(세태와 사리에 밝아 자기의 신명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잘 보전함)’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적 환경 아래 수많은 명사들의 ‘明哲保身’의 처세술은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였고, 산림에 은거하거나 현담에 빠져드는 명사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풍조가 유가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국이 혼란하고 사회가 어지러

*숙명여대 박사과정

울수록 위진 전반의 문화를 주도하였던 문벌귀족들은 유가의 경학을 家敎로 삼았다. 문벌귀족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聯婚을 통해 勢를 규합하였다면 내부적으로는 孝悌의 儒家的 덕목을 통해 자제들의 덕행을 고취시키고 家學을 전수시키는 데 힘썼다. 정치가 어지럽고 특히 아버지와 아들, 혹은 형제간의 骨肉相殘이 난무하던 시대적 배경 하에서는 處世에는 道家的 태도를 취했으나 기문의 유지와 세력의 강화를 위해서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儒家的 덕목으로 기문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강조된 명제가 孝悌와 어머니의 역할이었다. 전통적으로 ‘賢母良妻’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덕목이다. “집에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지아버리를 따르며, 지아버리가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는 중국 봉건사회 여성들의 전통적인 행동규범이다. 특히 훌륭한 어머니는 중국의 전통가정을 관장하는 주도자로서 자식들 특히 아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더구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魏晉시기에는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世說新語》에는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과 특별한 모자관계에 대한 다양한 일화들이 다수 실려 있다. 《世說新語》가 魯迅에 의해 志人小說¹⁾로 분류된 바 있으나 史實에 기인한 淸談書로서의 색채가 짙으며 漢末 魏晉 시기 실존 인물들의 일화를 엮은 작품으로 당시의 현실을 생동감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어떤 학자는 위진 시대를 ‘세실신어의 시대’²⁾라 칭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위진시대 가정과 사회에서 어머니들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世說新語》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全書에 걸친 어머니 관련 고사는 23條에 달하며 이 고사들을 통해 위진 시대의 어머니의 역할과 그 가운데 형성된 독특하고도 공고한 모자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魯迅의 《中國小說史略》에서 《世說新語》는 당시 유행했던 志怪의 틀을 벗어나 철저히 人事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새로운 양식의 ‘志人小說’이라는 영역을 개척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존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청담서라는 의견 역시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世說新語》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중심 주제가 아니므로 본고에서 특별히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2) 宇都宮清吉, <世說新語の世界>, 《漢代社會經濟史研究》, 東京, 弘文堂, 1955

II. 《世說新語》에 나타난 어머니 형상

前漢시대 劉向은 《列女傳》을 통해 일찍이 ‘母儀(훌륭한 어머니)’에 관해 첫 장에 열거하면서 “행실은 여러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그 말은 도의에 직중하며, 자손을 잉태하고 양육함에는 점차 교화하여, 그 덕으로 성장케 하여 큰 공업을 이루도록 한다”³⁾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전통과 反전통이 교차하던 漢末 魏晉 교체기 역시 문벌귀족들은 가문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儒家를 家學으로 전수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전통적 요구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世說新語》에 서는 <言語15> <文學39·68> <賢媛4·10·19·20> <尤悔1> <仇隙3·8>의 10條에 걸쳐 훌륭한 어머니의 의표를 제시하고 있다. <文學39>를 보자.

林道人(支遁)이 謝公(謝安)을 방문했다. 東陽(謝朗)은 당시 갓 머리를 땅은 10여 세의 나이로 막 병상에서 일어난 처지여서 몸이 아직 피곤함을 감당치 못할 지경이었으나, 林公(支遁)과 담론하다가 마침내 서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 동양의 모친 王夫人이 벽 뒤에서 듣고 있다가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 오게 했으나, 太傅(謝安)가 그를 계속 붙잡아 두었다. 그래서 왕부인이 직접 나와서 말하길: “이 아낙은 젊어서 남편을 잃었으며 일생 의지하는 바로는 오로지 이 아들 뿐입니다”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고 돌아갔다. 사공이 동석한 이들에게 말하길: “우리 형수의 말과 심정은 강개하여 가히 후세에 전할 만하오. 조정의 인사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이 한스럽소”라 했다. (林道人詣謝公, 東陽時始總角, 新病起, 體未堪勞; 與林公講論, 遂至相苦. 母王夫人在壁後聽之, 再遣信令還, 而太傅留之使竟論. 王夫人因自出云: 「新婦少遭家難, 一生所寄, 唯在此兒。」因流涕抱兒以歸. 謝公語同坐曰: 「家嫂辭情慷慨, 致可傳述, 恨不使朝士見!」)

《謝氏譜》에 따르면 謝朗의 부친 王據는 太原 王韜의 딸 王綏를 아내로 맞았다고 한다.⁴⁾ 謝郎의 모친은 “시아비가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전통적인 어머니의 형상으로 병든 아들을 보호하고자 눈물까지 보이며 지켜내었고 이 모습을 본 사안

3) 「行爲儀表, 言則中義; 胎養子孫, 以漸教化; 既成其德, 致其功業。」 劉向, 《列女傳》

4) 「朗父據, 取太康王韜女, 名綏。」 《謝氏譜》

도 감동하여 이를 후세에 전할 만하며 조정의 인사들에게도 알리고 싶다고 한 것이다.

<言語15>편에는 趙至에 관한 고사가 실려 있다. 趙景眞은 嵇康이 자신에 대해 白起의 풍모가 있으나 그릇이 협소하다 평하자, “한 자의 해시계로도 능히 璣衡(천체)의 표준을 잴 수 있고 한 촌의 관으로도 능히 四時의 오기는 기운을 헤아릴 수 있으니 어찌 반드시 커야만 하리오? 다만 식견이 어떠한가를 물을 따름이지요”라 답변한다.⁵⁾ 당대의 유명한 담론가인 혜강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유창한 논변과 훌륭한 재주를 지닌 조지의 뒤에는 그의 모친이 있었다. 劉注에서 인용한 棼掃의 《趙至敘》에는 그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있다.

현령이 새로 부임할 때 조지는 12살로 어머니와 함께 길옆에서 그를 보았다. 어머니가 이르길: “네의 선조는 미천한 집안이 아니었느니라. 너는 나중에 능히 이 사람처럼 될 수 있겠느냐?” 하자, “될 수 있습니다”라 했다.(令新之官, 至年十二, 與母共道傍看. 母曰: “汝先世非微賤家也, 汝後能如此不?” 至曰: “可爾耳”)

조지는 그 길로 스승을 찾아가 공부를 했으며 14세에 太學官에 입학했다. 논변이 훌륭하고 재주가 있었으며 遼東從事를 역임하면서 많은 송사를 판결하여 칭립하고 공정하다는 칭송을 받았다. 모친상을 당할 때, 찾아뵙지 못함을 애통해 하다가 피를 토하고 상이 끝나기 전에 죽었다 전한다.⁶⁾ 조지의 어머니는 “지손을 잉태하고 양육함에는 점차 교화하여, 그 덕으로 성장케 하여 큰 공업을 이루도록 한다”는 母儀의 표준에 부합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文學68>의 皇甫謐에 관한 고사에서 劉注에서 인용한 王隱의 《晉書》를 살펴보자.

황보밀의 일족은 모두 대대로 부귀했지만, 그는 홀로 청빈함을 지켰다. 그를 양육했던 숙모가 탄식하길: “옛날 맹자의 어머니는 세 번을 이사하여 자식을 올바르게 길렀고, ...이제라도 수양하고 독실히 공부하여 네 스스로 학문을

5) 「嵇中散語趙景眞:「卿瞳子白黑分明, 有白起之風; 恨量小狹。」趙云:「尺表能審璣衡之度, 寸管能測往復之氣; 何必在大? 但問識如何耳!」」《世說新語·言語15》

6) <言語15·劉注> 引 嵇紹, 《趙至敘》

이룬다면 내게 무슨 바람이 있겠느냐?”라 하면서 그를 마주 대하고 눈물을 흘리자 황보밀이 이에 감격했다. 20여 세에 향리의 席研에 나가 공부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을 하느라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 (謚族從皆累世富貴, 獨守寒素. 所養叔母歎曰: 「昔孟母以三徙成子, …修身篤學, 自汝得之, 於我何有?」 因對之流涕, 謚乃感激. 年二十餘, 就鄉里席坦受書, 遭人而問, 少有寧日.)⁷⁾

황보밀은 字가 士安이며 漢 太尉 皇甫嵩의 증손이다. 숙부와 함께 新安에 거주하였는데, 20세가 되도록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한가로이 빈둥거리며 마치 어리석은 양 행동하였다.⁸⁾ 이에 그를 맡아 키우던 숙모가 그를 얹혀 놓고 눈물로 호소한 것이다. 황보밀은 武帝의 자주 있었던 벼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던 재야의 석학으로 玄晏先生으로 불렸다. 침술공부에 전념하여 《甲乙經》을 저술하고, 穴位의 명칭과 위치, 經絡 이론, 침구에 의한 질병 치료법 등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썩나라 이전의 침구학을 완성하였다. 또한 96명의 隱士들의 이야기를 3권에 수록하여 편찬한 《古士傳》 및 《帝王世紀》, 《烈女傳》 등 다수의 책을 저술하였다. 황보밀의 숙모는 유향의 《列女傳》〈母儀〉편에 등장하는 맹자 모친이 세 번 이사하여 맹자가 학문에 정진토록 독려한 일을 언급하면서 학문을 이루어 기문을 빛내줄 것을 간청한 끝에 황보밀로 하여금 감격하여 마음을 다잡도록 했다. 〈賢媛4〉에 등장하는 卞太后도 훌륭한 어머니의 의표를 보여준다.

魏 武帝(曹操)가 붕어하자, 文帝(曹丕)는 무제의 궁녀를 모두 데려와 자신을 모시게 했다. 문제가 병들어 위중하자 卞后가 병문안을 갔다. 태후가 방에 들어서 보니, 시녀가 모두 지난날 (先帝가) 총애하던 자들이었다. 태후가 묻길 “언제 왔느냐?” 라고 하자 문제가 답하길 : “바로 (선제의) 혼백을 부를 때 왔습니다.”라 했다. 태후는 더이상 들어가지 않고 탄식해 말하길 : “개와 쥐도 네가 남긴 것은 먹지 않을 것이니, 죽는 것이 당연하다!” (태후는 문제의) 국상을 치를 때도 끝내 곡음을 하지 않았다.(魏武帝崩, 文帝悉取武帝宮人自侍, 及帝病困, 卞后出看疾: 太后入戶, 見直侍並是昔日所愛幸者. 太后問: 「何時來邪?」云: 「正伏魄時過。」因不復前, 而歎曰: 「狗鼠不食汝餘, 死故應爾!」至山陵, 亦竟不臨.)

7) <文學68·劉注> 引 王隱, 《晉書》

8) 「皇甫謚字士安, 幼名靜, 安定朝那人, 漢太尉嵩之曾孫也。出後叔父, 徙居新安。年二十, 不好學, 游蕩無度, 或以爲癡。」《晉書》卷51 <皇甫謚傳>

卞后는 魏文帝 曹叡의 生母이다. 劉注에는 《魏書》을 인용하여 그녀는 “성품이 검약하고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로서의 節儀와 덕행을 지니고 있었다”⁹⁾라 기록되어 있다. 武宣卞皇后는 조조의 세 번째 부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여인이다. 본래 조조에게는 본처로 丁夫人과 劉夫人이 있었는데, 조조의 첫 아들 豐愍王 曹芳은 바로 劉夫人 소생이다. 그런데 劉夫인이 일찍 죽게 되어 조양은 丁夫人에 의해 길러졌는데, 약관의 나이에 장수와의 싸움에 참전했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때문에 丁夫人은 조조와 의절하고 친정으로 내려가 버린 탓에, 변황후는 창기 출신으로 침실임에도 조조의 본처가 될 수 있었다. 《三國志·魏書》 卷5 <后妃傳>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동탁이 난을 일으키자 太祖(曹操)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동쪽으로 떠나 난을 피했다. 원술이 조조가 죽었다고 (잘못)전하자, 태조의 좌우에 있던 이들 중 낙양에 온 자들이 모두 돌아가고자 하자, 변후가 이르길: “조조께서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아직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돌아가버리고, 내일 만약 살아 여기 계신다면 어찌 다시 그 얼굴을 뵈겠소? 진실로 재앙이 닥쳐 함께 죽은들 고통스럽겠소!”라 하자 마침내 변후의 말에 따랐다. 태조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及董卓爲亂, 太祖微服東出避難. 袁術傳太祖凶問, 時太祖左右至洛者皆欲歸, 后止之曰: 「曹君吉凶未可知, 今日還家, 明日若在, 何面目復相見也? 正使禍至, 共死何苦!」 遂從后言. 太祖聞而善之.)

조조가 피난을 떠난 후에 원술이 조조의 죽음을 전하자 좌우의 사람들은 이 말만을 믿고 모두 떠나려 했다. 그러나 卞后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상황을 대처하는 침착함, 그리고 후일까지 대비하는 슬기로움으로 좌우 사람들을 저지하였다. 후에 조조가 살아 돌아와 이 소식을 듣고 그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녀의 사려깊음과 지혜로움이 창기출신의 그녀를 조조의 본처로 격상시킬 수 있었다. <尤悔> 에도 그녀가 절의를 지키면서도 자식에 대해 얼마나 모성애가 깊은 여인인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9) 「性約儉, 不尚華麗, 有母儀德行」 <賢媛4·劉注> 引 《魏書》

魏文帝(曹丕)는 동생 任城王(曹彰)이 용맹스러움을 꺼려했다. 모친 卞太后의 방에서 함께 바둑을 두면서 같이 대추를 먹는 기회를 틈타, 문제가 대추꼭지 속에 독을 넣어 두고서, 자신은 먹어도 괜찮은 것만 골라 먹었다. 임성왕은 알지 못하고 섞어 먹었는데 이미 중독이 된 후, 태후가 그를 구하려 물을 찾았다. 문제가 미리 좌우시종에게 명하여 두레박을 깨뜨려 놓았기에 태후가 우물로 뛰어갔지만 물을 길어 올 수 없었다. 잠시후 임성왕은 마침내 죽었다. 다시 東阿王(曹植)을 살해하려 하자, 태후가 말하길: “너는 이미 우리 임성왕을 죽였는데, 우리 동아왕까지 또 죽일 수는 없다”라 했다. (魏文帝忌弟任城王驍壯, 因在卞太后閣共圍碁, 並噉棗, 文帝以毒置諸棗蒂中, 自選可食者而進. 王弗悟, 遂雜進之; 既中毒, 太后索水救之; 帝預敕左右毀餅罐, 太后徒跣趨井, 無以汲; 須臾, 遂卒. 復欲害東阿. 太后曰: 「汝已殺我任城, 不得復殺我東阿。」)

조비는 동생 東阿王 조식이 太祖(曹操)의 총애를 받자 늘 시기했으며 즉위 후에도 사사건건 조식을 제거할 궁리를 하였다. 《世說新語》에는 조비가 조식에게 일곱 걸음 안에 시를 짓지 못하면 극형에 처한다고 하자, 조식이 시를 지어 한 찢 줄이나 서로 견제하는 상황을 읊은 일화가 실려 있다.¹⁰⁾ 이 일화는 역사서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민간에 ‘七步成詩’라는 고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듯 호시탐탐 동생의 목숨을 노리던 문제에게 모친 변후는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魏書》에는 또 “변후는 국고가 부족하자 궁중의 음식을 줄이고 쌓여있던 금은기물들을 모두 치웠다. 동아왕 조식은 태후의 막내아들로 태후는 그를 가장 사랑했다.(后以國用不足, 減損御食, 諸金銀器物皆去之. 東阿王植, 太后少子, 最愛之)”라 전한다. 卞后는 骨肉相殘이 난무하여 도덕이 문란해진 시대에 군주이면서 남편이었던 무제에 대해 節儀를 지켰으며 비록 군주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 아들로서의 조비의 인륜을 벗어난 행동에 대한 매서운 질타로써 강직한 氣概와 도덕성을 보였으며,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의 침착한 사리판단과 지조,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 자식을 사랑하는 자애로움까지 母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갖춘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 「文帝嘗令東阿王七步作詩, 不成者行大法. 應聲便爲詩曰: 「煮豆持作羹, 漉菽以爲汁; 其在釜下燃, 豆在釜中泣. 本自同根生, 相煎何太急!」帝深有慙色.」 《世說新語·文學66》

<賢媛10>에 등장하는 王經의 모친에 관한 고사를 보자.

王經은 어렸을 때 빈궁했으나, (후에) 2천 석의 봉록을 받는 벼슬에 이르렀다. 모친이 그에게 말하길: “너는 본래 가난한 집안의 자식인데 벼슬이 2천 석의 지위에까지 이르렀으니, 여기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라 했으나, 왕경은 따를 수 없었다. 尙書가 되어 魏를 도우면서 쫓에 불충하여 체포당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모친과 이별하며 말하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다가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라 했다. 모친은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 없이 그에게: “자식은 효도해야 하고 신하는 충성해야 하는데, 효도하고 충성했으니 나를 저버린 것이 무어란 말이나?” (王經少貧苦, 仕至二千石; 母語之曰: 「汝本寒家子, 仕至二千石, 此可以止乎?」 經不能用. 爲尙書, 助魏; 不忠於晉, 被收; 涕泣辭母曰: 「不從母教, 以至今日!」 母都無感容, 語之曰: 「爲子則孝, 爲臣則忠; 有孝有忠, 何負吾邪?」)

王經은 魏의 충신으로 후에 尙書가 되어 司馬紹가 무도하게 심복 成濟를 시켜 魏의 4대주 天子인 廢帝 曹髦를 시해하는 것을 보고 간언하다 모친과 함께 살해당했다. 당시 왕경은 눈물을 흘리며 모친에게 사죄했으나 모친은 안색조차 변하지 않고 “사람 중에 누가 죽지 않으랴. 전에 내가 너를 말렸던 것은 네가 올바른 자리를 찾지 못할까봐서였다. 지금 이렇게 목숨을 함께 하게 되니, 무슨 한이 있겠느냐?”¹¹⁾라 했다. 왕경의 모친은 봉건사회의 孝와 忠를 강조하여,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식을 가르쳤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할 도리를 다한 후에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식을 끝까지 애정으로 바라보며 칭찬할 수 있는 그녀의 태도는 母儀의 표준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賢媛19·20>의 陶侃의 모친을 보자.

陶公(陶侃)은 젊어서 큰 뜻을 품었지만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모친 湛氏씨와 함께 살았다. 같은 군의 范逵는 평소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孝廉에 천거되어 가는 길에 도간의 집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때는 며칠동안 얼음이 얼고 눈이 내렸는데, 도간의 집에는 아무 것도 없었으나 범규의 말과 시종은 매우 많았다. 도간의 모친 잠씨는 도간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손님을 붙들

11) 「人誰不死! 往所以以止汝者, 恐不得其所也 以此 命 何恨之有.」 <賢媛10·劉注>引《漢晉春秋》

고만 있어라.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보겠다”라 했다. 잠씨는 머리카락이 땅에 닿을 정도로 길었는데, 잘라 가발 2개를 만들어 팔아서 몇 곡의 쌀을 샀다. 집의 여러 기둥을 잘라서 모두 반으로 쪼개 뿔감을 만들고, 모든 짚자리를 잘게 썰어 말먹이를 만들었다. 저녁이 되어 마침내 훌륭한 식사를 마련했는데, 시종들까지 모두 부족함이 없었다. 범규는 이미 도간의 재능과 언변에 감탄했으며 그의 호의에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떠날 때, 도간이 계속 뒤따라가며 배웅을 백 리까지나 했다. 범규가: “길이 너무 멀어졌으니 자네는 마땅히 돌아가게나”라 했으나 도간은 돌아가지 않았다. 범규가 다시: “자네는 돌아가도 되네. 洛陽에 이르면 틀림없이 좋은 말을 해 주겠네”라 하자, 도간은 그제서야 돌아갔다. 범규는 낙양에 도착하여 羊曄과 顧榮 등 여러 사람에게 그를 칭찬했으며 (도간은) 훌륭한 명성을 크게 얻었다. (陶公少有大志, 家酷貧, 與母湛氏同居. 同郡范逵素知名, 舉孝廉, 投侃宿; 于時冰雪積日, 侃室如懸磬, 而逵馬僕甚多. 侃母湛氏語侃曰: 「汝但出外留客, 吾自爲計.」 湛頭髮委地, 下爲二髮, 賣得數斛米, 斫諸屋柱, 悉割半爲薪; 剉諸薦以爲馬草, 日夕遂設精食, 從者皆無所乏. 逵既歎其才辯, 又深愧其厚意. 明旦去, 侃追送不已, 且百里許. 逵曰: 「路已遠, 君宜還.」 侃猶不返. 逵曰: 「卿可去矣, 至洛陽, 當相爲美談.」 侃酒返, 逵及洛, 遂稱之然羊曄·顧榮諸人, 大獲美譽.)

陶公(陶侃)이 젊어서 魚梁을 관리하는 관리로 있었는데, 한번은 짓갈 한 단지를 모친께 보내 드렸다. 모친은 짓갈을 봉하여 심부름 온 사람에게 돌려주고 답신을 써서 도간을 질책하며 말하길: “관리인 네가 관청의 물건을 보내 온 것은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근심을 더하게 만든다”라 했다.(陶侃少時, 作魚梁吏, 嘗以一坩鮓餉母. 母封鮓付使, 反書責侃曰: 「汝爲吏, 以官物見餉; 非唯不益, 乃以增吾憂也.」)

도간의 모친 湛氏는 재능이 훌륭한 아들이 집안이 寒微한 까닭에 기회를 만나지 못함을 언제나 안타까워했다. 마침 孝廉에 천거된 범규가 도간의 집앞을 지나가자 아들에게 出仕의 길을 열어주고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집 기둥을 잘라 범규를 대접한다. 아들의 재능과 언변을 선보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고 살고 있는 집을 허무는 과감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큰일을 위해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리가 된 도간이 짓갈을 보낸 것을 돌려보내며 ‘관리로서의 도리’가 아님을 질책한 바 이 모두는 자식을 가르침에 ‘그 덕으로 성장케 하여 큰 공업을 이루도록(既成

其德, 致其功業)’하고자 한데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후에 이 고사는 ‘截髮易酒’라는 고사성어로 人口에膾炙되고 있다. 《晉書》卷 96에도 같은 고사가 실려 있으며 “이런 어머니가 아니면 이런 아들을 낳지 못하지”¹²⁾라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후에 征南大將軍으로서 王敦의 반란과 蘇峻의 변을 평정하는 등 40여 년 동안 진나라 왕실을 위하여 충성하였고 벼슬이 侍中太尉에 이르렀다. 도간의 재능 아래에는 그에게 그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고 그 포부를 펼칠 기회를 마련해 준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음을 세인들도 인정한 것이다. 그녀는 아들이 관직에 오른 후에도 그를 지도하고 교육함을 잊지 않았고 분수를 지키며 소위 儒家의 ‘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仇讎3>에도 司馬無忌의 모친이 지난 날 지아버 司馬愨王(司馬丞)에게 화를 입힌 王大將軍(王敦)과 王世將을 잊지 않고 있다가 장성한 후 (왕세장의 아들) 王胡之와 친하게 지내는 아들 사마무기에게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을 상기시키는 대목이 있다.

王大將軍(王敦)이 司馬愨王(司馬丞)을 체포하여 밤에 王世將(王廣)을 보내 민왕을 수레에 태워서 죽이게 했는데, 당시 아무도 알지 못했다. 비록 민왕의 집이라 할지라도 역시 모두 알고 있지는 않았으며 (민왕 아들) 司馬無忌 형제는 모두 어렸다. (왕세장의 아들) 王胡之와 사마무기는 장성한 뒤 서로 친했는데, 왕호지가 한번은 함께 놀고 있을 때, 사마무기가 들어가 모친께 고하고 식사를 청했더니, 모친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왕돈이 지난날 너의 부친에게 가혹한 짓을 하면서 왕세장의 손을 빌렸었다. 내가 오랫동안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는 왕씨 가문은 강성하고 너희의 형제는 아직 어려서 그 소문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화를 피하기 위함일 따름이었다!”라 했다. 사마무기가 경악하고 소리치며 칼을 빼들고 나갔더니 왕호지는 이미 멀리 도망쳤다. (王大將軍執司馬愨王, 夜遣世將載王於車而殺之, 當時不盡知也. 雖愨王家, 亦未之皆悉; 而無忌兄弟皆稚. 王胡之與無忌, 長甚相暱, 胡之嘗共遊, 無忌入告母, 請爲饌. 母流涕曰:「王敦昔肆酷汝父, 假手世將; 吾所以積年不告汝者, 王氏門彊, 汝兄弟尚幼, 不欲使此聲著, 蓋以避禍耳!」無忌驚號, 抽刃而出, 胡之去已遠.)

12) 「陶侃母湛氏, 豫章新淦人也。初, 侃父丹媵爲妾, 生侃, 而陶氏貧賤, 湛氏每紡績資給之, 使交結勝己。侃少爲尋陽縣吏, 嘗監魚梁, 以一坩鮓遺母。湛氏封鮓及書, 責侃曰:「爾爲吏, 以官物遺我, 非惟不能益吾, 乃以增吾憂矣。」番陽孝廉范逵寓宿於侃, 時大雪, 湛氏乃徹所臥新薦, 自剝給其馬, 又密截髮賣與鄰人, 供肴饌。逵聞之, 歎息曰:「非此母不生此子!」侃竟以功名顯。」《晉書》卷96 <列女傳>

사마무기 형제의 아버지 司馬丞은 礁王 司馬孫의 아들이자, 元帝(司馬睿)의 숙부로 宗室이었다. 東晉 왕조 建業의 공을 세운 왕도와 왕돈 등 왕씨 일족은 元帝에게 배척당하자 황제 측근의 간신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永昌 元年 정월에 武昌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왕돈은 丞相으로서 제군을 통솔하면서 세력을 떨치면서 끝내 자신의 편으로 돌아서지 않고 원제를 옹호한 사마승을 왕광을 통해 살해한다.¹³⁾ 비록 宗室의 혈육이었으나 왕돈이 세력을 떨칠 당시 사마승의 가문은 세력이 약화되었고 아들 사마무기 형제 또한 어려 가문의 후사를 잇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사마무기의 모친은 난세에 자식들을 禍로부터 보호하다가 왕돈의 난이 평정되고 자식이 장성하자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킨다. 이 행위는 ‘자손을 잉태하고 양육함에는 점차 교화하여, 그 덕으로 성장케 하여’라는 母儀의 모범적인 어머니의 모습이다.

桓脩의 모친 역시 <仇讎8>에서 어머니의 의표를 보여주고 있다.

桓玄이 찬탈하려 했을 때, 桓脩가 환현이 자신의 모친 처소에 있는 것을 틈타 그를 습격하려 했더니, 庾夫人(桓脩모친)이 말하길: “너희들은 사이 좋게 지내면서 나의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나는 환현을 길렀으니,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라 했다. (桓玄將篡, 桓脩欲因玄在脩母許襲之. 庾夫人云:「汝等近, 過我餘年; 我養之, 不忍見行此事.」)

환현과 환수는 사촌 형제지간으로 <排調65>¹⁴⁾에는 환현이 평소 환수를 경멸하고 비웃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 인해 환수가 환현에게 앙심을 품었다가 습격하려 하자 환수의 모친이 자신을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환현을 보호하고 骨肉간의 해침을 막았다. 역시 어머니로서의 慈愛와 피를 나눈 형제끼리의 골육상잔을 막으려는 節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위진시대 ‘어머니의 의표(母儀)’에 부합하는 여성들은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형상에 더하여 유향이 《列女傳》에서 제시하였듯 행실과 말이 모범이

13) 《晉書》卷37 <司馬丞傳>

14) 「桓玄素輕桓崖」《世說新語·排調65》

되고, 자손을 엄격함과 도의로써 양육하여 가문과 나라에 큰 공업을 이루도록 하는데 기여한 여성이며 이러한 기준에서 크게 칭송되어지고 있다.

III. 《世說新語》를 통해 본 魏晉의 모자관계

위진 시대 문벌귀족들이 家學의 전수를 위해 유가의 孝悌를 강조하였다는 점은 서론에서 밝힌 바 있다. 孝悌가 강조되었던 또 한가지의 이유는 曹魏정권과 마찬가지로 ‘禪讓’의 형식으로 篡逆에 의해 왕조를 찬탈하여 ‘충으로 천하를 다스린다(以忠治天下)’는 명제를 내세울 수 없었던 司馬 정권이 ‘효로써 천하를 다스린다(以孝治天下)’는 가치를 든 것이다.¹⁵⁾ 《晉書》卷3〈武帝紀〉에 泰始 4년의 詔令의 기록을 보자. “세상에 학문을 좋아하고 도를 두텁게 하여 孝悌忠信함이 두드러진 자가 있으면 그를 천거할 것이다. 부모에 불효하고 종족 간에 화목하지 않으며 예와 윤리에 어긋나 법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적발하여 죄를 묻겠다.”¹⁶⁾라 하였다. 《世說新語》도 儒家의 四科인 ‘德行’ ‘言語’ ‘政事’ ‘文學’편을 上卷에 따로 두었는데 이를 통해 위진남북조 시대에 經學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효행에 관한 이야기는 수십 條에 이른다. 魯迅은 일찌기 ‘後漢에서 東晉¹⁷⁾’까지의 일화를 다루었던 《世說新語》에 유일하게 秦末漢初의 사건인 〈賢媛1〉의 陳嬰母 故事와 南朝 宋初사람 吳郡의 陳遺의 일화를 다룬 〈德行45〉편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문에서 주요하게 다룬 시대를 벗어난 일화들은 모두 어머니에 대한 효행에 관련된 것들로, 이를 통해 당시 효행에 관해 상당히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言語90〉에 “효무제가 장차 《孝經》을 강론하려 하였다.”¹⁸⁾라는 대

15) 魯迅, 〈魏晉文章及風度與藥及酒之關係〉, 《魯迅全集》 第3集

16) 「世庶有好學篤道, 孝悌忠信, 清白異行者, 舉而進之; 有不孝敬父母, 不長悌于族黨, 悖禮棄常, 不率法令者, 糾而罪之」 《晉書》卷3〈武帝紀〉

17) 魯迅, 〈世說新語與其前後〉 《中國小說史略》 第7集

18) 「孝武將講孝經」 《世說新語·言語90》

목이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황제가 직접 굳이 《孝經》을 강론했다는 점은 당시 황실에서 《孝經》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시사한다.

국가에서 법령으로 효제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효행은 魏晉시대 가정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다. <政事1>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陳仲宮(陳寔)이 太丘의 현령으로 있을 때, 관리 가운데서 어머니의 병을 사칭하여 휴가를 구한 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일이 발각되자 중궁이 그를 잡아 들여 刑吏에게 사형시키라 했다. 主簿가 獄吏에게 회부하여 다른 죄도 조사하도록 하자, 중궁이 말하길: “상관을 속였으니 불충이요, 어머니를 거짓으로 병 들었다 했으니 불효다. 불충불효는 그 죄가 막대하니 다른 죄를 조사한들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라 했다. (陳仲弓爲太丘長, 時吏有詐稱母病求假, 事覺收之, 令吏殺焉. 主簿請付獄, 考衆姦. 仲弓曰: 「欺君不忠, 病母不孝; 不忠不孝, 其罪莫大. 考求衆姦, 豈復過此?」)

이 일화는 漢代의 일이다. 漢武帝가 ‘罷黜百家, 獨尊儒術’을 들어 孝悌의 道를 널리 시행한 예시라 하겠다. 충과 효는 儒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니 이 둘을 어긴 자에게 사형이란 중형을 내린 것이다. 魏晉 시대에 들어서도 효행은 유가가 쇠락한 가운데서도 중요한 덕목으로 사회 가치관을 주도하였다. <德行26>을 보자.

祖光祿(祖納)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어머니를 위하여 손수 불을 때 밥을 지었다. 王平北(王父)이 그의 훌륭한 명성을 듣고서 婢女 두 명을 보내주고서, 이로 인하여 그를 中郎으로 등용했다. (祖光祿少孤貧, 性至孝, 常自爲母炊爨作食. 王平北聞其佳名, 以兩婢餉之, 因取爲中郎.)

劉注에서 인용한 王隱의 《晉書》에 의하면 祖納은 范陽 邈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9대에 걸쳐 효렴에 천거되었다.¹⁹⁾ 지극한 효성으로 명성을 날리고 王父에게

19) <德行26·劉注> 引 王隱《晉書》

婢女까지 상으로 받은 것은 쯤武帝가 법령에 밝힌 바 “孝悌忠信함이 두드러진 자가 있으면 그를 천거할 것(擧而進之)”임이 실천된 예라 하겠다. <德行47>에도 丹陽郡에 살던 吳附子(吳隱之) 형제가 모친 童夫人의 상을 당한 일화가 있다. 형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친에 대한 사모의 정이 지극했으며 빈객이 조문하러 오면 발을 구르며 애절하게 통곡하여 길 가는 사람들조차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전한다. 오은지의 모친에 대한 효성은 韓康伯의 모친 殷氏를 감동시켰고 은씨는 吏部尙書인 아들 韓康伯에게 그를 등용하라 추천한다.²⁰⁾ 효행으로 명성을 떨쳐 관직에 임할 기회까지 얻은 것이다. <術解1>을 보면 당시 효에 대한 관념이 사회적 지위의 高下를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殷中軍(殷浩)은 經脈에 정통했는데, 중년에는 모두 그만 두었다. 갑자기 늘 부리던 하인이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을 하여 피를 흘릴 정도였다. 殷浩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죽게 될 일이 있으나 끝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 했다. 한참 캐물었더니 그제야 말하길: “소인의 모친은 백 세 가까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외 진맥을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면 곧 살아날 가망이 있을 것이오니, 후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여한이 없겠습니다”라 했다. 은호는 그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되어 마침내 모친을 메고 오게 하여 진맥을 하고 처방을 해 주었다. 처음 탕약 한 제를 복용했더니 곧바로 나왔다. 그래서 의약서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 (殷中軍妙解經脈, 中年都廢. 有常所給使, 忽叩頭流血. 浩問其故? 云: 「有死事, 終不可說.」 詰問良久. 乃云: 「小人母, 年垂百歲, 抱疾來久; 若蒙官一脈, 便有活理. 訖就屠戮無恨.」 浩感其至性, 遂令昇來, 爲診脈處方. 始服一劑湯, 便愈. 於是悉焚經方.)

品題와 門第 관념이 투철했던 魏晉 시대 의원의 사회적 지위는 百工人이라 하여 士卒과 더불어 양민의 최하위에 해당하는 미천한 신분이었다.²¹⁾ 은호는 陳郡 殷氏의 名門이었다. 의원직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 명성에 누가 될 수 있으며 名門 高官의 명예에 크게 허물이 되는 바였다. 더구나 하인이 高官의 주인에게 모친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한 것은 주인의 허물을 알면서도 요청한 不敬의 대죄에 해당

20) 《世說新語·德行47》

21) 《宋書》卷 18 <服飾志·禮> 卷5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의 모친에 대한 지극함에 감동된 은호는 허물을 무릅쓰고 진맥과 처방을 해주게 된다. 이 일화를 통해 당시 孝行이 孝廉이라는 뿌리 깊은 관습과 더불어 사대부들의 가치관에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溫嶠의 경우는 모친의 만류를 뿌리친 것을 이유로 鄉品에 통과하지 못하여 관작을 받을 때마다 조서를 내려야 했음이 <尤梅9>에 기록되어 있다.

溫公(溫嶠)이 처음 劉司空(劉琨)의 명을 받고 (후에 元帝가 된 司馬睿에게) 제위에 오르라고 권했을 때, 모친 崔氏가 한사코 그를 붙잡았지만, 溫嶠는 옷자락을 끊고 떠났다. (이 때문에 온고는) 존귀하게 되었을 때에도 鄉品에는 여전히 통과하지 못했다. 官爵을 받을 때마다 모두 조서가 내려지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溫公初受劉司空使勸進, 母崔氏固駐之, 嶠絕裾而去. 迄於崇貴, 鄉品猶不過也. 每作皆發詔.)

鄉品은 魏晉代에 인재를 선발하여 관리로 임용할 때 실시한 九品中正制에서 나온 것으로 才能과 人品을 1品에서 9品중으로 나누었다. 관리 지방자들은 반드시 上品에 들어야 임용될 수 있었다. 온고는 不孝로 鄉品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官爵을 수여하려면 天子의 詔書에 따른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 《晉書》卷67 <溫嶠傳>에는 溫嶠가 모친의 장례에 가지 못하여 散騎侍郎의 임명을 고사하였고 여러 신하들이 이에 대해 논의한 기록이 있다.²²⁾ 元帝 司馬睿의 즉위를 권하며 ‘勸進表까지 지었던 온고는 그러나 “부모에 불효한 자는 적발하여 죄를 물겠다”라는 명제에 적용되어 官爵을 받는데 항상 조서를 받아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면치 못했다.

<雅量2> 劉注에서 인용한 《晉陽秋》에 따르면 嵇康과 친분이 두터웠던 東平의 呂安은 모친을 때렸다고 밀고되어 이로써 文王(司馬昭)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이 사건을 변론하다가 鍾會의 논고로 愾將 역시 죽음을 맞게 되는데 “時俗”을 가볍게 여긴다는 죄목이었다.

22) 「除散騎侍郎。初，嶠欲將命，其母崔氏固止之，嶠絕裾而去。其後母亡，嶠阻亂不獲歸葬，由是固讓不拜，苦請北歸。詔三司、八坐議其事，皆曰：「昔伍員志復私讎，先假諸侯之力，東奔闔閭，位爲上將，然後鞭荆王之尸。若嶠以母未葬沒在胡虜者，乃應竭其智謀，仰憑皇靈，使逆寇冰消，反哀墓次，豈可稍以乖廉廢其遠圖哉！」嶠不得已，乃受命。」《晉書》卷67 <溫嶠傳>

<德行43>에 桓南郡(桓玄)의 포로가 된 羅企生이 처형 전에 할 말이 있느냐 묻는 桓玄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다.

나기생이 답하길: “옛날 晉 文王이 嵇康을 죽였으나 그의 아들 嵇紹는 살아 진의 충신이 되었다 하니, 공께 요청하건대 하나 뿐인 동생을 살려주어 늙으신 어머님을 봉양토록 해주시오”라 하자, 환현이 그 말대로 나기생의 동생을 풀어 주었다. 호씨는 그때 豫章에 있었는데 기생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날로 갖옷을 불살라 버렸다. (企生答曰:「爲殷荊州吏; 今荊州奔亡, 存亡未判, 我何顏謝桓公?」既出市, 桓又遣人問欲何言? 答曰:「昔晉文王殺嵇康, 而嵇紹爲晉忠臣; 從公乞一弟以養老母。」桓亦如言宥之. 桓先曾以一羔裘與企生母胡; 胡時在豫章, 企生問至, 卽日焚裘.)

劉註에 인용한 《中興書》에 따르면 나기생은 字가 宗伯이며 豫章사람인데 殷仲堪 아래에서 자의참군으로 지내면서 은증감이 실패할 것을 예감했으나 끝까지 그를 따른다. 은증감이 패주할 때 집앞을 지나다가 동생 羅遵生을 만나 “오늘 일로 나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어머님을 잘 봉양하여 자식의 도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한 가문에 충신과 효자가 함께 있게 된다면 다시 무엇을 한탄하겠느냐”라 당부한다. 戰亂과 骨肉相殘의 참극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모친에 대한 효심을 당부한 기생과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포로의 당부를 들어준 桓玄의 예로써 晉代에 ‘孝’를 중시했음을 증명해 볼 수 있다. 일찍이 余嘉錫은 晉代의 이러한 양상에 대해 “중원이 어지러워진 이래 왕의 강령이 헤이해지고 풍교가 점차 쇠약해졌으나 孝悌의 시행은 조야에서 모두 중히 여겼다”²³⁾라 했다.

<德行14>에 王融의 아들 王祥이 계모를 극진히 모신 일화가 있고²⁴⁾ <德行29>에도 王長豫의 色養之孝를 기록하면서 어머니 曹夫人을 위해 항상 상자 속에 든 어머니의 물건을 함께 정리해 드렸다는 일화가 있다.²⁵⁾ <德行45>의 진유의 일화

23) 「自中原云擾, 五馬南浮, 雖王綱解紐, 風教凌夷, 而孝悌之行, 獨爲朝野所重。」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24) 「王祥事後母朱夫人甚謹, 家有一柰樹, 結子殊好, 母恒使守之, 時風雨忽至, 祥抱樹而立, 祥嘗在別牀眠, 母自往闚所之, 值祥私起, 空所得被, 既還, 知母憾之不已, 因跪前請死, 母於是感悟, 愛之如己子。」 《世說新語·德行14》

25) 「王長豫爲人謹順, 事親盡色養之孝, 丞相見長豫輒喜, 見敬豫輒嘆, 長豫與丞相語, 恒以慎密爲端, 丞相還臺, 及行, 未嘗不送, 至車後, 恒與曹夫人併當箱篋, 長豫亡後, 丞相還臺, 登車後, 哭至臺門, 曹夫人作篋, 封而不忍開。」 《世說新語·德行20》

는 효행으로 전장에서 목숨을 구했다고 사람들에게 널리 칭송받고 人口에 膾炙되 었다.

吳郡의 陳遺는 집안에서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의 어머니는 술 밑에 누 른 누룽지를 좋아했는데, 진유는 군의 主簿가 되어서도 항상 자루 하나를 가 지고 다니면서 밥을 지을 때마다 누룽지를 긁어 모아 돌아와서 어머니께 드 리곤 했다. 후에 孫恩의 도적이 오군에 나타나자 袁府君이 그날로 바로 정벌 에 나섰다. 그때 진유는 여러 말의 누룽지를 모았지만 미처 집에 돌아갈 겨를 이 없어서 마침내 그것을 메고 종군했다. 滬瀆의 싸움에서 패하여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산속으로 도망갔지만 대부분 굶어 죽었다. 그러나 진유만은 누 룽지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지극한 효성에 대한 보답이라 고 여겼다. (吳郡陳遺, 家至孝, 母好食鑊底焦飯. 遺作郡主簿, 恒裝一囊, 每煮食, 輒貯錄焦飯, 歸以遺母. 後值孫恩賊出吳郡, 袁府君即日便征, 遺以聚斂得數斗焦飯, 未展歸家, 遂帶以從軍; 戰於滬瀆, 敗, 軍人潰散, 逃走山澤, 皆多餓死, 遺獨以焦 飯得活. 時人以爲純孝之報也.)

진유가 목숨을 구한 것은 戰亂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굶어 죽는 이가 대부분 인 상황에서 어머니를 위해 모아 둔 누룽지 덕분이며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世人 들은 모친에 대한 지극한 효성으로 진유가 목숨을 구한 것이라 여겼다. 효성을 미 답으로 부각시킨 당시의 풍조를 엿볼 수 있다. <文學82>를 보자.

謝太傅(謝安)가 主簿 陸退에게 묻길: “張憑은 어찌하여 모친의 誄文만을 짓 고 부친의 誄文은 짓지 않았는가?”라 하자 육퇴가 답하길: “그것은 틀림없이 남자의 미덕은 평생의 사업에서 나타나지만 여자의 미덕은 뇌문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라 했다. (謝太傅問主簿陸退: 「張憑何以作母誄, 而不作父誄?」 退答曰: 「故當是丈夫之德, 表於事行; 婦人之美, 非誄不顯.」)

《晉書》 卷75 <張憑傳>에 따르면 장빙은 일찍이 孝廉에 천거될 정도로 향리사 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일찍이 장빙이 어렸을 때, 祖父 張鎮이 장빙의 부친에게 “나는 너처럼 훌륭한 아들이 없으니 너만 못하다”라 했더니 장빙이 “어찌 자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놀리십니까”라 했다 전한다.²⁶⁾ 이토록 효성스럽던 장빙은 부친의

뇌문은 짓지 않았으나 모친이 돌아가시자 가정 내에 간혀 드러나지 않는 모친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기 위해 뇌문을 지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王述의 경우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그의 부친 왕잠 역시 모친이 연로하다는 이유로 관직을 사양한 바 있다.²⁷⁾

이상의 일화들을 살펴보면 《世說新語》에는 부친에 대한 효행의 기록도 물론 존재하지만 모친에 대한 효행을 부각시키는 일화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고찰해 볼 수 있는데, 당시 문벌 간의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가정 내 지위의 향상에서 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聯婚으로 인한 門閥들의 공고한 세력의 유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이전에 비해 중시하게 했고, 특히 代를 잇는 것이 중요했던 문벌귀족 사회에서 혼란한 政局 등으로 위태로웠던 가정의 위치는 母子간의 관계를 더욱 각별해지도록 했다.

《孔子家語·本命 第二十六》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七去’중 두 번째 사유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니, 아들을 낳고 못 낳고는 가정 내 여성의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魏나라 尙書丞을 지낸 裴潛의 아들로 중국지리학사에 족적을 남긴 裴秀의 생모는 부엌일을 하던 노비였다. 《裴子語林》에 따르면 배수가 18세에 명망을 얻고도 본부인 宣氏가 배수의 생모로 하여금 손님상을 접대하도록 하자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를 하였다. 배수의 생모는 “비천한데 어찌 이렇게 하시는지요? 당연히 제 아들 때문이겠지요”라 하였고 본부인 宣氏는 다시 배수의 생모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 고사를 통해 婢妾이지만 아들이 훌륭하게 되었을 경우 어머니로서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모자관계는 더욱 각별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전통적으로 중국 사회에서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그 책임을 맡아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유교사회에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은 바로 어머니라는 역할이며 그 역할은 특히 아들과의 관계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26) 「張憑字長宗。祖鎮，蒼梧太守。憑年數歲，鎮謂其父曰：「我不如汝有佳兒。」憑曰：「阿翁豈宜以子贖父邪！」及長，有志氣，爲鄉閭所稱。舉孝廉，負其才，自請必參時彥。」《晉書》卷五《張憑傳》

27) 「承字安期。清虛寡欲，無所修尚。…在府數年，見朝政漸替，辭以母老，求出。…述字懷祖。少孤，事母以孝聞。」《晉書》卷五《王湛傳》

어머니는 아들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²⁸⁾ 딸과는 달리 혼인 후에도 한 집안 머물면서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아들은 자신의 아내에게도 모친에 대한 효행을 요구하게 된다.²⁹⁾ 그 가운데 아들은 가정윤리의 근본이 되는 유가의 효라는 윤리적 명제의 실천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그렇다면 정치에 무관하게 老莊사상을 추구하면서 反예교적이고 脫명교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竹林七賢 등 隱逸 名士들은 효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 이들의 '任誕(감정에 충실한)'적인 행위만을 보고 그들이 가족의 倫理를 무너뜨리고 '孝'의 명제에 어긋났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隱逸 名士들은 '禮'보다는 '情'을 중시하였기에 喪禮에 있어서도 외적으로는 예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내재적인 감정의 진실한 표현으로 '진정한 효'를 실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德行17>를 통해 당시 '孝'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王戎과 和嶠가 동시에 親喪을 당했는데 모두 효성으로 이름나 있었다. 왕융은 슬퍼서 뼈만 남은 채 침상에 의지하고 있었으나, 화교는 哭泣하면서 예를 갖추었다. 晉 武帝가 劉仲雄(劉毅)에게 이르길: "경은 왕융과 화교를 자주 보았소? 듣건데 화교는 애통함이 지나쳐 사람들을 걱정케 한다던데"라 하자, 중응은: "화교는 비록 예는 갖추었지만 정신과 기력은 손상되지 않았고, 왕융은 비록 예를 갖추었지만 애통함이 몸을 망쳐 뼈만 남았습니다. 신이 생각건데 화교는 살아서 효도를 하고, 왕융은 죽더라도 효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화교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응당 왕융을 걱정하셔야 합니다"라 했다. (王戎·和嶠同時遭大喪, 俱以孝稱. 王鷄骨支牀, 和哭泣備禮. 武帝謂劉仲雄曰: 「卿數省王和不? 聞和哀苦過禮, 使人憂之!」 仲雄曰: 「和嶠雖備禮, 神氣不損; 王戎雖不備禮, 而哀毀骨立. 臣以和嶠生孝, 王戎死孝; 陛下不應憂嶠, 而應憂戎.」)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왕융도 효행으로 이름나 있었다는 점과 親喪으로 뼈만 남은 정도로 초취해 있었다는 점이다. 劉注에서 인용한

28) 下見隆雄, <劉向「列女傳」より見る儒敎社會と母性原理>, 廣島大學文學部紀要 第50卷, 1991, 3 (김인숙, 《사대부와 술·약 그리고 여자》, 書景文化社, 1998 참조)

29) 「孔雀東南飛」, 《後漢書·鮑永傳》, 《後漢書·列女廣漢姜侍妻傳》 등에는 시어머니에 의해 쫓김을 당한 며느리에 관한 고사가 있다.

《晉陽秋》에 따르면 왕융은 “모친상을 당했는데, 성품은 극히 효성스러웠으나 예법에는 구애받지 않았다. …화교의 초취함과 애통함은 왕융에 미치지 못했다”³⁰⁾라 전한다. 《禮記》〈曲禮上〉에는 居喪중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수척하게 되어서도 피골이 상접하게 해서는 안되고 시력과 청력은 유지해야 한다…병이 있다면 술과 고기를 할 수 있지만 병이 나으면 다시 상례에 맞게 한다. 喪事를 견디지 못해 병이 나는 것은 자애롭지 못한 것이요, 불효하는 것이다”³¹⁾라 하고 있다. 여기서 화교가 보여준 효는 喪禮에 적합한 ‘生孝’이고, 완적의 태도는 ‘滅性’에 이르는 ‘死孝’인데, 이는 위진인들의 ‘任情’의 풍조에도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학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의 안에 감추어진 인격의 진면목을 “自然”이라는 본질을 통해 찾아내고자 했기 때문이다.³²⁾ 당시 사회에서 왕융의 내심에서 나오는 진실된 애통함을 예를 다 갖춘 화교보다 높이 샀으므로 반영적 행위가 묵인될 수 있었던 것이다. 왕융의 감정은 예법이라는 허위의 껍질을 깨고 나와 人情의 본질을 보인 것으로 이같은 예는 〈任誕〉에 완적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阮籍은 모친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 때, 살찐 돼지 한 마리를 삶고 술 두 말을 마신 연후에 永訣에 임하여 “끝났구나!”라고만 했다. 이 한 번의 통곡 끝에 피를 토하더니 오랫동안 혼절했다. (阮籍當葬母，蒸一肥豚，飲酒二斗，然後臨訣，直言「窮矣！」都得一號，因吐血，廢頓良久.)

외관적으로 완적은 특별히 아프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술과 육식을 금하고 있는 상례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그의 행위의 이면에는 모친에 대한 질절한 슬픔으로 혼절을 할 정도의 애정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은 禮보다는 情을 중시했던 당시의 사회 풍조이기도 하다.³³⁾

《晉書》卷43 〈王戎傳〉에 의하면 왕융은 일찍이 모친의 병환으로 관직을 그

30) 〈德行17·劉注〉引《晉陽秋》

31) 「居喪之禮，喪容不形，視聽不衰，有疾則飲酒食肉，疾止復初，不勝喪，乃比於不慈不孝。」《禮記》〈曲禮上〉

32) 王曉毅，《中國文化的清流》，295쪽. 중국,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91년

33) 余英時，〈名教危機與魏晉士風的演變〉，《中國智識階層史論(古代篇)》，臺北，聯經出版社，1980

만두고 귀향하기도 했다.³⁴⁾ 《晉書》卷43 <山濤傳>에 산도는 “시중으로 입조했고, 상서가 되었으나 모친이 연로하여 사직했다…모친의 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이 예순이 넘었는데도 居喪을 지나치게 하였다. 몸소 흙을 떠서 봉분을 쌓고 손수 나무를 심었다.”³⁵⁾ 라 전하고 있다. 완적 등 죽림칠현이 은일과 기행을 일삼은 원인을 《晉書》 <阮籍傳> 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완적은 본디 제세의 뜻이 있었으나, 위진 교체기에 정국의 혼란으로 변고가 많아 온전히 목숨을 부지하는 명사가 적으므로, 세사에 관여하지 않고 늘 술에 취해 있었다. 文帝(司馬昭)는 처음에 武帝(司馬炎)를 위해 완적에게 구혼을 하려고 했으나, 완적이 60일을 취해 있으므로 말할 틈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중회가 여러 차례 시사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 그 가부를 통해 죄를 물으려 했으나, 취해 있어서 화를 면하였다.(籍本有濟世志, 屬魏晉之際, 天下多故, 名士所少全者, 籍由是不與世事, 遂酣飲爲常. 文帝初欲爲武帝求婚於籍, 籍醉六十日, 不得言而止. 鍾會數以時事問之, 欲因其可否而致之罪, 皆以酣醉獲免.)

완적이 늘 술에 취해 있었던 이유를 《晉書》의 저자는 완적이 세상을 위해 큰일을 할 뜻이 있었으나, 변고 많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 포부를 펼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마정권과 정치적 견해가 달랐던 완적은 정면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마정권과 혼인관계를 맺을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술이라는 방어기제 속에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현실 도피를 선택한 것이다. 즉, 이들 竹林七賢 등 隱逸 名士들의 脫예교적인 행위는 사마정권의 허위적 예교에 대한 반발의 한 방식일 뿐 ‘孝’리는 유가의 윤리적 근본에 대한 무시는 아니었다. 즉, 이들은 여전히 전통질서 내의 도덕과 예교의 ‘진정한 실천’을 추구했으며 신봉했다.³⁶⁾

34) 「戎在職雖無殊能, 而庶績修理。後遷光祿勳、吏部尚書, 以母憂去職。性至孝」 《晉書》卷43 <王戎傳>

35) 「入爲侍中, 遷尚書。以母老辭職…會遭母喪, 歸鄉里。濤年踰耳順, 居喪過禮, 負土成墳, 手植松柏。」 《晉書》卷43 <王戎傳>

36) 魯迅, 《魏晉文章及風度與酒之關係》, 《魯迅全集》 第3篇

그렇다면 이들의 모친에 대한 각별한 감정을 가정윤리의 근본이 되는 유가의 효라는 윤리적 명제에서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전통적인 효 개념의 계승이라는 측면만으로 모친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충분치 않다. 그렇다면 사상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당시 사회에 성행하던 老莊 사상이 모친에의 애정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자.

老子는 생성의 주체로서 또 道의 작용체로서 ‘谷神’과 ‘玄牝’의 비유를 들고 있다.

계곡의 신(谷神)은 죽지 않으니 이를 일러 玄牝(오묘한 암컷)이라 한다. 오묘한 그윽한 암컷의 문을 일러 천지의 뿌리라 한다. 가늘고 길게 계속 이어져 존재하니 그것을 써도 근심이 없다.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綿綿若存 用之不動)³⁷⁾

古대로 牝牡(雌雄)을 표시하였는데, 牡는 수컷을 牝는 암컷을 의미한다. ‘玄牝’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원시 모성 혹은 雌性 意義의 발전이라 볼 수 있다. ‘谷神’은 ‘道’의 隱語적 표현으로 그 精髓는 끊임없이 생성한다는 작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³⁸⁾ 또 다른 의견으로 蘇兵은 谷神의 谷이 帛書《老子》에서 ‘浴’으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곡신’에 대해 ‘물을 근원으로 한 문화’로 해석하였다. 모두 끝없이 만물을 생성하고 기르는 자연을 모성이 지닌 생명성에 비유하여 ‘谷神’과 ‘玄牝’으로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王弼注《道德經》下篇第42章에는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陰을 의지하여 陽을 품고 충돌하는 기운으로써 화합한다”³⁹⁾라 하여 天地萬物이 생기고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老子는 만물의 생성과정에서 陰을 陽 앞에 둬으로써 陰이 陽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莊子도 일찍이 다음과 같이 ‘至德之世’의 이상향에 대해 견해를 밝힌 바 있다.

37) 王弼注《道德經》上篇 第6章

38) 詹石窗,《道教與女性》,世界文物出版社,臺北,1992

39) 「道生一, 一生二,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王弼注《道德經》下篇 第42章

신농씨의 때에는 백성들은 누워있을 때에는 편안하고 일어나 있을 때에는 스스로 즐거웠으며, 사람들은 그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는 몰랐다. 호랑이나 사슴과 어울려 살면서 밭을 갈아 밥을 먹고 베를 짜서 옷을 입어 서로 해칠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니, 이것은 지극한 덕이 가장 성한 것이었다. (神農之世, 臥則居居, 起則于于, 民知其母, 不知其父, 與麋鹿共處, 耕而食, 織而衣, 无有害之心, 此至德之隆也.)⁴⁰⁾

이 견해에 따르면 莊子는 姓이 모계중심으로 흐르는 시절이 덕이 충만한 시대였다고 예찬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전체 가족의 중심임을 강조하고 周나라의 ‘가부장적 종법제도’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현하면서 “그런데 성인에 이르러서는 애써 仁을 행하고 義를 실천하게 해서 천하가 비로소 의심하게 되었다…참된 도덕을 훼손하여 仁義를 만든 것은 성인의 과오다.”⁴¹⁾라 밝히고 있다.

완적이 大將軍從事中郎일 때, 모친을 살해한 자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부친을 살해하는 것이 可한데서 모친을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앉아 있던 자들이 그 失言을 괴이하게 여겼다. 문제가 이르길: “부친을 살해하는 것은 천하에 극히 악한 일이거늘 어찌 가하다 하는가?” 완적이 이르길: “금수는 어미는 알지만 아버지는 모릅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는 금수의 부류입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자는 금수만도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탄복했다. (帝引爲大將軍從事中郎。有司言有子殺母者, 籍曰: 「嘻! 殺父乃可, 至殺母乎!」坐者怪其失言。帝曰: 「殺父, 天下之極惡, 而以爲可乎?」籍曰: 「禽獸知母而不知父, 殺父, 禽獸之類也。殺母, 禽獸之不若。」衆乃悅服。) ⁴²⁾

우선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괜찮으나 어미를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어법을 통해 완적은 孝治를 표방하는 사마정권을 금수에 비유하며 비웃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는 알지만 그 아버지는 모르는’ 시대를 제시했던 장자의

40) 陳鼓應, 《莊子今注今譯》下, 「盜跖」, p. 778.

41) 「及至聖人, 覺寔爲仁, 踴跂爲義, 而天下始疑矣…毀道德以爲仁義, 聖人之過也。」 陳鼓應, 《莊子今注今譯》下, 「馬蹄」, p. 246-247

42) 《晉書》卷49 <阮籍傳>

견해를 완적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예교를 비롯하며 名敎의 형식을 초월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던 완적도 어머니는 짐승에게조차 각별한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해석하고 있다. 道家에서 ‘여성성’이나 ‘모성’의 문제는 ‘생명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립되는 것이니, 자연과 玄理를 숭상하며 外物에 구속받지 않는 老莊이 성행하였던 魏晉 시대 모친에 대한 애정을 노장사상에서도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특별한 母子관계의 형성 원인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孝治’의 표방과 예교를 강조한 사마정권에 의한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다. 둘째, 문벌 간의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가정 내 지위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셋째, 전통적 유가사상에서 강조한 ‘孝治’의 윤리적 명제와 전통 봉건 가정 내 어머니의 역할의 중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老莊사상의 성행으로 자연을 숭상하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법과 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회적 풍조가 빚어낸 魏晉시대의 두드러진 여성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IV.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진 시대의 문화는 도가사상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유가와 완전한 단절을 하지 못했음을 위진 시대 어머니의 역할과 지위를 통해 알 수 있다. 더구나 문벌귀족사회라는 특수한 사회적 구조를 갖추었던 상황에서 문벌귀족들이 儒家的 덕목을 통해 가학 전수를 하는데 가장 중시한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었다. 玄學과 淸談 등 사상적·정신적 자유와 풍요로움 속에서도 여성은 가문에 의해 결혼이 결정되고 가문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가문을 유지하고 나아가 빛내는 역할이 요구되어 졌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여성이 크게 칭송되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역할의 강조는 단지 문벌귀족사회의 유지를 위한 유가적 시각

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속과 틀을 거부하고 유가의 형식적인 예법을 경시했던 완적 등 죽림칠현 명사들도 모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인 것이 그 증거이다. 위진 사회를 주도했던 도가사상에서 ‘여성성’이나 ‘모성’의 문제는 ‘생명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립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위진의 어머니 형상은 단순히 문벌귀족제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世說新語》에서는 全書에 걸쳐 여성관련 일화가 대략 119조에 이른다. 그 중 훌륭한 어머니의 의표인 母儀관련 일화는 10條이며, 각별한 母子관계에 관한 고사가 13조 등 모두 23조에 이르러 전체 119조 중 19%에 이른다. 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 분류에 따른 일화⁴³⁾ 중 어머니에 관련된 일화가 전체 여성관련 일화 중 19%에 이르다는 것은 魏晉시대에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중시되었음을 대변한다. 또한 관련 일화들이 순종적이고 가부장제도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보다는 가문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그 밑거름인 아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양육하며 적극적으로 가정사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賢母良妻’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이었다. 그 중에서도 ‘賢母’로서의 어머니의 역할과 지위는 가부장제도를 맥락으로 하는 중국의 가정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강조되어왔다. 본고에서 다루고자했던 관건은 가부장제도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玄學과 淸談의 시대로 대변되는 魏晉시대에도 유가적 덕목으로 요구되는 어머니의 역할과 효행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魏晉시대에 요구되었던 어머니의 역할은 단순히 유가적이고 전통적인 범주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역할이 더하여 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시대를 풍미했던 도가의 ‘여성성’과 ‘생명성’에 관련된 사상 또한 당시 어머니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내부에는 문벌귀족사회의 유지라는 코드가 밑바탕에 깔려있기는 하지만 유가적 덕목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여성의 이미지 및 도가의

43) 이영숙, <世說新語를 통해 본 魏晉時代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6. 이서는 《世說新語》에 나타난 魏晉時代 여성에 관해 傳統的 여성형상·魏晉의 새로운 여성형상·魏晉 여성의 정치적 위상·魏晉 여성의 사회적 위상 등의 각도로 연구·분석하였다.

‘생명성’으로 대변되는 魏晉시대의 어머니상은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혼란한 사회 그리고 儒道가 공존했던 사회풍조가 만들어낸 魏晉만의 독특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參考書目》

- 劉義慶, 《世說新語》(上下), 思賢講舍刻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禮記》, 13經注疏本, 臺北, 藝文印書館
《三國志》, 楊家駱 主編, 臺北, 鼎文書局, 1978, 3판
《晉書》, (《二十五史》5-6), 서울, 景仁文化社, 1977
《魏書》, (《二十五史》9), 서울, 景仁文化社, 1977
《南史》, (《二十五史》11), 서울, 景仁文化社, 1977
劉 向, 《列女傳》, 黃清泉 註釋, 三民書局印行, 臺北, 1996
鮑家麟, 《中國婦女史論叢》, 臺北, 牧童出版社, 1979 (民國68年)
蔡獻榮, 《中國婦女史論集》, 臺北, 牧童出版社, 1979 (民國68年)
余英時, 《中國智識階層史論》(古代篇),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0
魯 迅, 《中國小說史略》, (《魯迅全集》9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徐 震, 《世說新語校箋》, 中華書局, 1984
萬繩楠, 《魏晉南北朝文化史》, 黃山書社出版, 1989
陳 鵬, 《中國婚姻史稿》, 北京, 中華書局, 1990
詹石窗, 《道教與女性》, 世界文物出版社, 臺北, 1992
劉義慶 《世說新語》上中下, 劉孝標 注, 김장환 譯注, 살림, 1996
蘇 兵, 《老子和 性》, 노승현 옮김, 서울: 문학동네, 2000
이공범, 《魏晉南北朝史》, 지식산업사, 2003
易中天, 《중국의 남자와 여자》, 홍광훈譯, 법인문화사, 2003
宇都宮清吉, <世說新語の世界>, 《漢代社會經濟史研究》, 東京, 弘文堂, 1955
楊 瑞, <從「世說新語」看魏晉士風對女性生活的影響>, 飲州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19卷, 第1期, 2004.3
김장환, <世說新語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김장환, <魏晉南北朝 志人小說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金元中, <世說新語와 魏晉清談의 關聯問題>, 성균관대학교, 1994

김인숙, <魏晉時代 儒敎의 女性觀>,

《龍巖車文燮博士停年紀念論叢(檀大史學志28輯)》, 1995

박경희, <世說賢媛呈現之女性>, 韓國中語中文學會, 第18輯, 1996.6

박경희, <謝道蘊을 통해 본 清談時代의 여성>, 韓國中語中文學會, 第31輯, 2002.12

申順貞, <도가사상의 가족개념에 대한 고찰>, 새한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 제33집, 2003-제3권

《英文提要》

Wei-Chin Nan-Bei dynasty(魏晉南北朝) is a political terrorism period, but in the literary ideology . philosophy field that era can be called as a period of social revolution which created new social system and advanced culture so on. 《Shin-shuo Hsin-yu(世說新語)》 is the representative literary works of gathering anecdotes about famous people who lived in Wei-Chin Nan-Bei dynasty(魏晉南北朝). Some people described Wei-Chin Nan-Bei dynasty(魏晉南北朝) as the age of 《Shi-shuo Shin-yu(世說新語)》, because it contains literature, ideology and philosophy of those days. That is the reason why this paper takes 《Shi-shuo Shin-yu(世說新語)》 as a basic material for study of mothers who lived in Wei-Chin Nan-Bei dynasty(魏晉南北朝). This paper would study and analyze mothers' lives and a sense of values through 《Shin-shuo Hsin-yu(世說新語)》 which describes vividly the life of Wei-Chin Nan-Bei dynasty(魏晉南北朝). Through all of this reviewing for 《Shin-shuo Hsin-yu(世說新語)》, we can understand the mothers of Wei-Chin Nan-Bei dynasty(魏晉南北朝) in which Confucianism and Taoism coexist, Xian-xue(玄學) and Qing-tan(清談) are prevalent, and Confucian ideas are still requested by the aristocracy. This paper could show how maternal and filial affection was solidified under social and political atmosphere, mothers who were influenced from noble lineage play an important part, and the mothers' status were changed. And we can also consider the sense of values of Wei-Chin Nan-Bei dynasty(魏晉南北朝) women who were mothers and their true value itself.

關鍵詞: 世說新語, 위진(魏晉)시대, 중국여성